

출자 ·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7. 23.(목) 15:25~16:35			장 소	서별관 회의실
참석상황	재적	참석	불참		
	13	12	1		
안 건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				
회의내용	※ 회의록 별첨				
회의결과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 : 원안가결				

회 의 내 용

[사회자]

- 운영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보고(총 재적인원 13명 중 12명 참석)
- 위원장님의 개회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 구영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위원회는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E-mail을 통해 보내드린 회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 이 자리에서는 안전설명을 간략히 듣고,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심의안건 설명
- 심사방법 설명 : 안전에 대한 심의자료와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등을 참고
심사표에 각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과 적정·부적정 여부 기재
서명하고 담당자에게 제출

회 의 내 용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심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 안건 제안 설명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 내 용

[○○○ 위원]

-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중구가 터줏돌 아니겠습니까? 인천의 상징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제 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을 집중해야 해서, 재단이 진작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검토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광역 재단이 있고, 중구를 기반으로 해서 개항 등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것들을 피하거나 슬기롭게 관리 권한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BC값이 0.89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1.0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0.89인데 경제성확보가 되었다고 용역을 했던 산학협력단에서 판단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 두 번째는 맨 뒤에 끝 페이지에 보시면, 중구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공무원 감축효과가 6명 이상 있다고 하는데요. 감축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구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가동을 시작하면 행정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는 중구 관내의 문화예술행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단에 다 맡기고, 정책적인 부분을 할지, 문화재단의 일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더불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기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담당하는 그 팀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 먼저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89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 인천시문화재단, 그리고 부평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이 있는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율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제성이 낮더라도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중구가 경제성 분석에서는 가장 높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 의 내 용

- 인력 감축 효과에 있어서도 6명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인원에서 총괄하는 인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정책 부분은 중구와 문화재단이 같이 협력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있고요.
그 정도 인력을 뺀 나머지 인력이 6명이상 감축되고요. 실제 여기 용역 결과에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신규 인력 27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27명을 다 채우지는 않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왜냐하면 인계인수 과정이 있고, 계획을 세우려면 운영 최종 인원까지 그 안정된 인원까지 결과가 79명이기 때문에, 그 점도 별도로 검토해서 인력구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원]

-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인하대 용역에서는 문화원하고의 업무 중복성 검증이 잘 되었어요.
잘되었는데 아직 중구문화원과 중구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 상황은 안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과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인하대에서 용역한 결과를 놓고 보면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문화교양강좌’ 하였고, ‘문화학교 종합전시회’ 했고, ‘중구 문화 어린이 합창단 운영’ 하고 있고, ‘중구향토지 편찬’ 하고 있고, ‘단오놀이 전통혼례식’, 그다음에 ‘월미문화발간’ 등 단기성 사업 위주예요. 이러한 것은 중구문화재단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구문화원과 중구문화재단의 관계성에서도 업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짚어보면요.
문화원에서 시민문화교양강좌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업무 분장표를 보시면요. 나중에 이관 타당성 있는지 조사하셨는데 이것을 보다보면, 시민문화교양강좌운영하고, 나중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해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같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예요.

회 의 내 용

- 그런데 굳이 이것을 문화원 것과 문화재단 것을 따로 구분하면, 나중에 업무의 평평현상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저쪽이 하겠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잘 짚어서 충돌이나 평평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료에 보시면 ‘독립운동 역사문화 콘텐츠개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사업’ 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문화원 사업 중에서 중구향토지 역사문화총서 편찬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같은 사업 내용으로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중복성을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처음 출범하면서 100억원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중 37억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 수익금이 18.5% 정도 됩니다. 그럼 18억원 정도 되는데, 너무 인건비 비중이 높다보니 처음부터 부담스럽지 않을까합니다.
- 여기 용역결과를 보니까, 종로구는 5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3개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달서구가 기금이 24억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38명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개 본부 7개팀 79명이라는 인원으로 가야할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민문화 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처음에서부터 약간 슬림하게 운영하시다가 좀 더 키워서 조직을 보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재단을 보면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니즈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중구 분들을 보면 기회 만족도가 좀 많이 낮은데, 문화의 향유의식이 높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불만이 체험이나, 실습기회가 부족하다고 나와서, 이번에 청장님과 남부교육청과 시교육청과 연계했던 ‘마을교육지원단 사업’ 이 있어요.
이런데에서 전문가를 더 활용하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 의 내 용

- 초기 운영하실 때에 중복되는 부분과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게 슬림하게 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나 기업 전문가들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민·관·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끌고 나가면, 실질적으로다가 구민의 흥미가 높은 분야와 관심 있는 분야를 재단이 커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조직 축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신규에 대해서 27명이 분석 되어있고요. 기존 인력이라는 것은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구의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봤을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적더라도 신규 인력이 대다수인 경우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넘어가면서 많은 것입니다.
-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데, 가장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현황이라든가 인계인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 문화원과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 물론 사전에 1차적으로 협의를 끝났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음 조직단계에서는 신규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감축효과가 있는 공무원 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이 되었을 때 정식 재단이 출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인력부분은 초창기에 공무원이 이동하여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도심과 신도심 욕구의 차이 부분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부분을 개발해서, 말씀하신대로 민·관·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회 의 내 용

[○○○ 위원]

-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재단에서 하는 일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대해서 여전히 많은 역할을 해온 인천문화재단과의 중복 우려가 의견에서 나왔는데,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답이 필요하구요.
- 그 외에 중구문화원이나 중구문화재단, 한중문화관 등과의 업무는 얇은 자료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재단 이관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많은 중구에 있는 기관들과의 관계가 중구문화재단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독립적이기도 하고 상당부분은 문화재단이 총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괄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좋은 뒷받침으로서의 중구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기존에 많은 기관들이 하는 부분을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중복이 많이 안 되게 되는 것인데, 이관이 안 되나요? 여기 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 네, 이관이 맞고요. 대부분 이관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문화시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중복성에 문화원하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실제 우리가 중구문화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문화원 고유 사업보다는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이 더 많이 해오기는 하셨습니다. 그 위탁 주는 사업 대부분은 축제나 행사와 같은 것이었는데, 문화원 내부적으로도 지금 문화원 그 향토사 연구부터해서 아카이빙 구성이라는 쪽이 우리가 약했다라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문화재단은 물론 시 문화재단하고도 중복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서구, 연수구, 부평구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인데, 시 문화재단과의 업무 중복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회 의 내 용

[○○○ 위원]

- 이쪽에서 파악한 것이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 저희 모두 견학을 다녀오고, 문화재단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에서 하는 시 문화재단 업무영역과 구에서 하는 구 문화재단 업무영역이 구분이 가능하고요. 실제 시청과 중구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것처럼 연계도 가능하고 구분도 가능하기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여기 지금 하시는 화교역사관, 근대건축전시관, 개항박물관 등 이런 많은 분들이 하던 사업들을 여기로 이관을 한다면, 그 기관들의 특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함께 더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물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그동안 작년부터 충분한 고민을 하고 사업방향을 조율한 상태이고요. 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가 끝나면,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구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과 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방향도 서로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 위원]

-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인건비가 너무 무겁지 않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문화관련 기관들이 많이들 너무 사람을 아끼고 줄이려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될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면 이 중구문화재단에 더 중요한 건 지금 기존의 기관들에 없었던 문화인력 양성사업, 문화콘텐츠사업 이런 식의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얼마나 잘 명확하게 하실 것인지가 더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회 의 내 용

- 그 부분이 두꺼운 요약보고서의 79페이지에 보면, 콘텐츠기획팀에서 한다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잘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아온 많은 경우에서 볼 때, 실제로 이 콘텐츠기획팀이 하는 일이 다른 팀들에서 하는 일들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이렇게 새롭게 기관을 만들어서 하고자하는, 인천의 문화 인력을 키우고 문화 인력이 중구로 많이 모여들게 만들고, 단순히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 사업을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중구의 특성과 인천의 특성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하게 되어야할 것 같고요.
- 사실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것도 많은 자본과 인력들로 되었지만 결국에는 현재 특색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정말 이게 중구문화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단순히 중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행사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만드는 의미가 약한 것 같고요. 기존에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었던 문화인력 양성사업이라든가 문화콘텐츠사업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전문 문화 인력들이 여기로 많이 모여들게 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업을 중구문화재단의 이름으로 하나 더 하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에 관한 부분만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저희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듬어 가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중구청에서도 문화재단 관리하면서도 다듬어가며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이후에 이루어져야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 의견을 계속적으로 설립될 때까지 적용하겠습니다.

회 의 내 용

[위원장]

- 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 네,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위원]

- 네, 중구문화재단을 많은 곳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성공한 재단은 어디이고 실패한 재단은 어디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앞으로 전략적으로 성공전략을 세워갈 것인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지금은 물론 설립에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설립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목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심도 있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 나중에 운영하면서 문제이겠지만, 인천공항에 가면 많은 문화행사를 하거든요. 행사 중심입니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연계해서 더 많은 문화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 예산규모는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만 전적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 일반적으로는 구 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 내에서 국고보조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통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게 되고요. 요즘 문화재단과 기업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후원제도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기업후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가 주는 예산 외에 국고보조라든가 민간보조 공모사업, 그 다음에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는 문화재단도 있고요.

회 의 내 용

- 작년 기준 전국 101개 문화재단이 있고, 인천에는 총 4개의 문화재단으로 인천시문화재단과 부평, 서구, 연수구가 있는데, 최근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적은 인력으로 설립이 되었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공모사업을 해서 이미 4억원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민간보조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 물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설립안정화 단계까지는요.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어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 구성에서 보면, 기존인원 52명, 신규인원 27명을 얘기하셨는데, 27명이 재단 소속으로 가는 것인지 중구에서 파견이 되는 형태인지, 또 신규 27명은 재단의 구성원인지 또 다른 신분관계인지 여쭙보고 싶고요.
- 장기 과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이면,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이 재단과 사단 중간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집합체이고 재단은 돈의 집합체입니다. 처음 투입에 총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본재산액이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기본 재산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여 주시고, 재단의 발전 가능성과 재단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은 당장 많지 않더라도 향후 기본 재산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 의 내 용

[문화관광과장]

- 기존 인력은 기존 업무가 이관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 27명의 새로운 인력은 새롭게 구성되는 조직의 새롭게 채용되는 문화재단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고용승계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 그다음에 보통 재단법인 같은 경우 재단의 충분한 예산으로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인천에 있는 지금 문화재단들도 보통 천만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 결과에는 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 네,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위원]

- 저는 너무 늦었다고 보고요. 중구 개항 지구는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 시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 전체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재단 근본 목적이 재원이 확보되어야하고,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운영하면서 수입원, 지금도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것들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민의 재정 부담을 안고서 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에는 어쩔 수 없고, 문화재단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검토에서 1.0이 못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것에 따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입원을 창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 재정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

회 의 내 용

[위원장]

- 네, ○○○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위원]

- 말씀을 드리면, 인력 구성 79명에서 기존의 인력은 타 기관에서 전체 중,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인력이 40여명이 이관되는 이런 형식으로 편제가 되는데요. 편제과정 시 이적과정에서 퇴직금, 연차 문제로 직원들은 동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이 문화재단으로 이적할 때에 충분히 협의해서하는 절차가 중요할 것 같고요.
- 신규인력으로 채용되는 27명의 인원들은 새로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들어오므로 별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인력이 이적할 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추진하고자하는 중구문화재단의 필요성에서보면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를 지원한다는 큰 목표가 있는데요. 제가 주민으로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문화소외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오늘은 많은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설립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가부를 정해야하는 것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용역결과 요약보고서를 할 때에, 몇 분의 의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고견을 넣어서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 나머지 운영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다가 의견을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보내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위원장]

- 네.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해주시고 하신 부분들은 숙고해서 연계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 내 용

[○○○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주신 것은, 중구문화재단 발족에 출발에 이왕이면 더 모양새 있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실제로 잘되는 문화재단도 있지만, 안 되는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립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실무진도 그렇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하자는 의지가 있기에 의견 수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들이 이관될 때의 처우라든가 한 치의 서운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위원 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의방법은 배부해드린 심사표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기재하신 사항을 취합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심의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심사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표를 보시면 적정성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결과에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 의 내 용

[참석위원 전원]

(심사표 작성)

[위원장]

- 그러면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은
참석위원님 12분이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도 내리고 날씨가 껄은데 참석하여주시고,
문화재단 설립의 고견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